

시선

사설

공허한 계획만으로 창대한 끝을 기대 말라

포화의 잣더미 위에 정성스레 심은 목련화가 70번째 꽃을 틔웠다. 경희에 봄담은 구성원의 하나로, 그 70번째 봄을 맞이함에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학내 상황이 쓸쓸하기만 할 뿐이다.

70주년을 맞아 계획했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공허하게 남았다. 개교 70주년이자 공과대학 50주년을 맞아 짓는다던 공과대학 패밀리온 건설 사업은 2018년 2학기 이후 한다마다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2012년 11월, 당시 조인원 총장을 위원장으로 주대해 건축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던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 계획은 이제 와선 기억하는 이조차 드물다. 총 예산 700억 원 중 2014년 연말까지 기부를 통해 7억 원 가량을 모았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다. 무엇보다 구성원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과 함께 첫 개교기념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미 요원한 일이 됐다.

죽하의 규모도 과거 50주년, 60주년의 거창한 행사를 돌아보면 맥이 빠진다. 죽해야 형편에 맞춰 행하는 것이 맞고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해가는 것이 맞다. 다만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담대한’ 슬로건과 구성원의 눈에 비치는 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점이 괴로울 뿐이다.

기실 매년 찾아오는 개교기념일과 70주년 개교기념일은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특히나 올해 개교기념일은 토요일이니, 아쉬움을 표하는 구성원도 적지 않을 터다. 10진수를 기본으로 사고하는 우리이나, 10으로 끊어지는 숫자가 명확하게 다가오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한 각종 계획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학교는 담대하게 시작해 흐지부지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부진한 논의에만 10년 가까이를 소요하며 그간 스쳐간 많은 재학생에게 희망과 문물을 안겼던 이제는 SPACE21이라 불리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대표적이다.

또 다시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달라지는 계획 속에 언제 완성될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며 10년, 20년을 보내다 맞는 100주년은 사양이다. 구성원은 확실한 약속과 이행을 원한다. 재정은 어렵고, 총장도 없고, 대학을 둘러싼 재판사항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무엇을 근거로 담대한 100년을 내다볼 것인가. 당장 71주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읍기 8장 7절이다. 개역한글 성경 번역이 채용한 ‘창대’라는 단어의 힘에 여기저기 쓰이는 말이지만 이 말을 뱉은 자가 신실한 읍을 조롱하는 친구라는 사실까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성경의 해석이 어떠하든 우리는 창대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담대하게 신중하게, 구성원에게 믿음을 주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좋은 날에 굳이 쓴 소리를 던지는 이유는 그리하여 모두가 100년째의 목련화를 웃으며 맞이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대학은 지금

소외되는 이 없는 따듯한 캠퍼스 “각자도생 대신 공존의 자세 필요해”

김지원 기자 kjkw990327@khu.ac.kr

지난 2일 인제대에 재학하는 30여 개 국가 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범죄예방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았다.(인제대, 외국인 학생 위한 범죄예방·안전교육 실시/한국대학신문, 2019.5.5.) 김해 중부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과 보이스 피싱, 도박, 마약 등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안전한 유학 생활을 보내도록 당부했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연세대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1년간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에 소속된다.(GBED, 학교와 학생들의 동상이동 ‘외국인 학



이 주의 주제 -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부탁드립니다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여러 학내 사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다니다 보면 자연히 학교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구성원들을 취재원으로 만나게 된다. 취재원들은 하는 일, 맡은 역할에 따라 취재에 응하는 태도도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반갑게 맞아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계부터 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미처 묻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속집에 묻지 않으면 좀처럼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기도 한다.

때로는 아주 노련한 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반갑게 맞아주고, 하나만 물어도 둘에서 열까지 폭포 같은 대답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바쁘게 쏟아지는 말을 수첩에 받아 적고 나면 아주 뿐듯한 기분마저 든다. 하지만 편집실로 돌아와 수첩을 펴놓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든다. 3~40분을 넘게 인터뷰했는데 정작 기사로 쓸 수 있는 내용은 한, 두 문장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태도의 취재원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혹은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 얼굴을 마주했을 때부터 ‘이 취재원은 어떤 유형일지’ 판단이 서게

된다. 취재 방식 역시 취재원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자 입장에서 어떤 유형이 좋고 싫은지는 자명하지만, 기자에게 ‘싫은’ 취재원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취재원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일과 목적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취재 응대는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사로 쓸 만한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어디까지나 기자의 역량이다.

하지만 취재원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자 입장에서는 들을 때마다 긴장되는 말이 있다. 바로 ‘오프 더 레코드 부탁한다’는 말이다.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을 들으면 거의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이 뇌리를 스친다. 알쏭달쏭하던 사건의 전말을 이제야 좀 파악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한 가닥이고, 결국 기사로는 못내겠구나 하는 걱정이 다른 한 가닥이다.

할 수 있는 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취재원의 신변이나 취재 대상인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보도로 얻을 공익과 부작용을 저울질해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결국 기자로서 판단과 편집방침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취재원이 호의적으로 취재에 응해 줬다면 당연히 더욱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기를, 우리의 일과 목적을 이해해 주기를.

생 보호 장치인가?’…입장 차는 여전해/연세춘추, 2019.5.16.) 유학생들은 학사 관련 공지가 늦게 이뤄진 점, 기준 소속 학과보다 등록금이 높다는 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불만을 토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도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달 19일 총학생회(총학)는 입장문을 통해 “GBED 관련 논란은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미흡한 행정 처리에 관한 문제”라며 “조만간 GBED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도서관) 내 일부 시설 및 이용에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처 몰랐던 장애 학생들의 불편함/한대신문, 2019.5.6.) 도서관 1층 장애 학생 휴게공간인 ‘더불어숲’ 기자재 관리 문제, 청결 상태 문제가 지적됐다. 6층짜리 건물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2층에만 존재한다는 점과, 도서 대출 시 휠체어 이용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도 문제였다. 도서관 측은 “학생들에게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중앙대 제13차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됐다.(장애학생 지원 범위, 이전보다 넓어진다./중대신문, 2019.5.6.) 개정안에는 기존 방침에 더해 지원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다는 절차가 추가됐다. 그밖에도 교수·학습 지원, 시설·설비 지원, 상담 지원 등 지원체계도 다방면에서 개정됐다. 학생교육실무소위원회 학생 위원 구성에도 장애학생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부산대에서 ‘개정 강사법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각자도생 대신 공존의 자세 필요해”/부대신문, 2019.5.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노조) 임순광 전 위원장은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연했다. 해고자 구제책 마련, 경력단절 강사를 위한 공익형 연구지원사업 신설, 예비강사 대학원생 연구 지원 사업 신설 등이 제안됐다. 임순광 전 위원장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공존의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희, ‘꾸준히 연주된 그리고 연주될’

세시봉

김지원 기자



시간만큼 공평한 것을 있을까 싶다. 숨 쉬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빈부도, 성별도, 나이도 거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평히 매일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한 달이, 일 년이 된다. 시간은 꼭 그렇게 흐른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300년 된 바이올린을 보았다. 확실히 좋은 소리였으나 20억 원이라는 가격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본디 소모품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알고 보니 악기는 어떻게 다뤄졌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게 된다고 한다. 바이올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주되면 악기 내부에 소리가 지나는 미세한 흠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악기의 가치가 된단다. 즉 꾸준히 연주되고 정성스레 관리된 악기에게 시간의 흐름이란 소모가 아닌 가치인 것이다.

그저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느덧 개교 70주년이 되었다. 허허벌판에 들어선 목조건물이 어디 내놔도 어깨가 으쓱한 새하얀 석조 건물이 되기까지의 시간이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목표를 쫓고 ‘학술과 평화’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었다. 당시를 마주했던 순간은 길었지만 돌아켜 생각하면 다소 찰나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학술과 평화’ 실현에 대해 고민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지구사회봉사단(GSC)을 운영하며, SPACE21을 추진했다. 미래사회에 주역을 기르는 미래대학의 자세를 갖추는데 종력을 기울인 것이다. 또 국내 대학의 세계화를 외치며 꾸준히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최근에는 타임즈고등교육 2019 아시아 대학 평가 국제화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거듭된 고민과 실천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이제 우리 대학은 단순한 세계화를 넘어 지구적 존엄과 공동체 형성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만드는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양교육에 혁신을 더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학문 간의 융합을 꾀해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는가 하면 오래된 학문을 혁신하기도 한다. 이 모두 더 나은 인간을 길러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300년 된 바이올린에 새겨진 미세한 흠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때문에 우리대학이 그간 지나온 발자취를 그 흠에 비유하는 것은 삼가겠다. 다만 그것이 오랜 시간 꾸준히 연주된 결과 얻은 흠이라는 사실은 알기에 우리대학이 지나온 시간 역시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고 이야기하고 싶다. 시작은 도전이었고 성장이었으며 때로는 역경을 맞기도 또 이겨내기도 한 시간이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대학이 꾸준히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 할 것이기에, 앞으로 마주할 100주년, 200주년, 마침내 300주년에는 당당히 바이올린에 새겨진 흠, 즉 시간의 흐름에서 얻은 가치를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승호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